



[新羅始祖의 가을]

박씨 종친의 가을이 시작됐다. 지난 23일 경주시 포석로 907(탑동 77) 경주 오름에서 신라시조왕(新羅始祖王) 추향대제(秋享大祭)가 경상북도와 경주시 후원으로 엄숙하게 봉행됐다. 오름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왕을 비롯한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 시조왕 왕후 알영 왕비의 능이다. 이날 영천에서는 박씨종친회 박치호 종친지부장과 박보근 전 영천시의회원 '아달리왕 참봉'으로, 박주득 씨가 '일성왕 참봉'으로 각각 참석해 박씨 종친들의 화합을 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추향대제(秋享大祭)때(9월23일)는 환경부가 멸종위기 종으로 보호하고있는 온몸이 황색이고 등쪽에 두줄의 금색줄이 선명한 황금개구리(사진)가 출현해 박씨 가문의 권력 상징성을 나타냈다.

도로 건설 5개년 계획 확정... 영천은 없어

<2021~2025>

28일 국토교통부 확정-도로 신설·개량 116개 사업 10조 352억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국지도 건설에는 경북도 23개 시·군 중 12개 사업(국도9, 국대도1, 국지도2)에 총 연장84.8km 9,472억원 규모 도로건설이다. 여기에 영천시는 제외됐다.

도내 주요 도로건설 내용은 ▷신설사업으로 국도3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김천시 외곽순환도로 등 7.00km에 1073억 원, ▷확장사업은 안동 풍산~서후간 국도34호선 확장 11.2km에 1776억원, 성주~대구 연결 국도30호선 4→6차로 확장 9.5km에 1395억원, 경주의동 녹동~문산간 국도14호선 2→4차로 확장 571억원, 대구~칠곡 국도5호선 4→6차로 확장 316억 원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

▷또 신설·개량 사업에는 청송 진보~영양간 국도31호선 2차로 개량 5.40km 920억원, 경주 양남~문태대왕 국도14호선 2차로 개량 669억원, 상주 신촌~서원간 국도25호선 2차로 개량 484억원, 군위 삼국유사~우보간 국도28호선 개량 7.7km 412억원, 청송 청운~부남간 국도31호선 개량 328억원,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0호선 2차로 개량 1101억원, 문경 농암 화산~사현간 국지도32호선 2차로 개량 5.4km 총사업비 427억 원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코로나19 마음방역 추진

의료급여 역량 강화 자기 삶 능동적 변화

영천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의료급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의 규칙적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안정 및 자기 삶의 능동적 변화 제공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1차 참여자 10명 모집해 주 2회 사회활동 회복지원 및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이번에 2차 참여자



를 대상으로 캘리그래피, 포일 캐리 등 미술활동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회복지 체계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도적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야사 택지구획정리 D업체
 뒷거래 의혹 - 2면

기획 연재
 노계 박인로 선생 재조명 - 8면

辭令



김효정 기자

2021년 9월 29일자 명함

수덕에식장

2층
80평 / 70평

1층
70평 / 32평

임대

병·의원 1·3층
특별우대 분할가능

1층 약국 / 2층 당안신내과
영업중

"수덕출장뷔페 & 도시락" 사업은 계속합니다

문의 전화 010-3809-7100

야사 택지구획정리 D업체...고경 SRF·의료폐기물 소각장 뒷거래 의혹

[돋보기분석]

영천시 고경면이 소각장 및 발전소 시설 허가(설치)와 관련해 내홍에 휩싸였다. SRF(일반고형연료)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를 받아주겠다고 5억원이 오갔는가 하면 또 다른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위한 준비 각서로 수 억원의 주민발전기금이 거론돼 논란이 커지고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폐비닐로 SRF 발전소 원료생산)가 신규 허가를 신청해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때문에 고경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9월14일 오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37명의 이장들 가운데 32명이 참석해 면사무소 행정회의 후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결과 이장들은 SRF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경면 상계로 178-18 SRF발전소는 고경면 삼산리·삼포리·석계리 등 3개 마을이,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고경면 청정1·2리와 덕암리·파계리에 들어선다. 이들 두 업체 시설은 사실상 주민동의 없이 설립될 수 없다.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 외에도 고경면은 삼포리와 오룡1·2리 및 임고 수성에 천장산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다 음식물 찌꺼기를 반입해 퇴비화 하는 D영농조합법인과 이들 지역 축산 농가들이 수 천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매년 지급해오고 있어 주민들의 또 다른 금전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SRF사업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업으로 2018년 경북도가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했다. 그러나 같은 해 종전 건축물을 발전시설용도로 변경신청하면서 2018년 지역 A씨를 포함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SRF측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했지만 영천시가 승소해 건축물용도변경은 불허됐다. 항소를 포기한 SRF측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우선인 판결로 주민 의견과 동의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곧바로 주민동의서 수렵에 착수한다.

■ 5억원 뒷거래 의혹 주민동의서

핵심 주민동의서는 SRF설치를 위한 영천시의 요구다. 그러나 SRF측은 "A씨 등의 반대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있다"는 주장이다. "A씨를 포함해 주민들이 단결하여 동의서 반대 등 집단화 하고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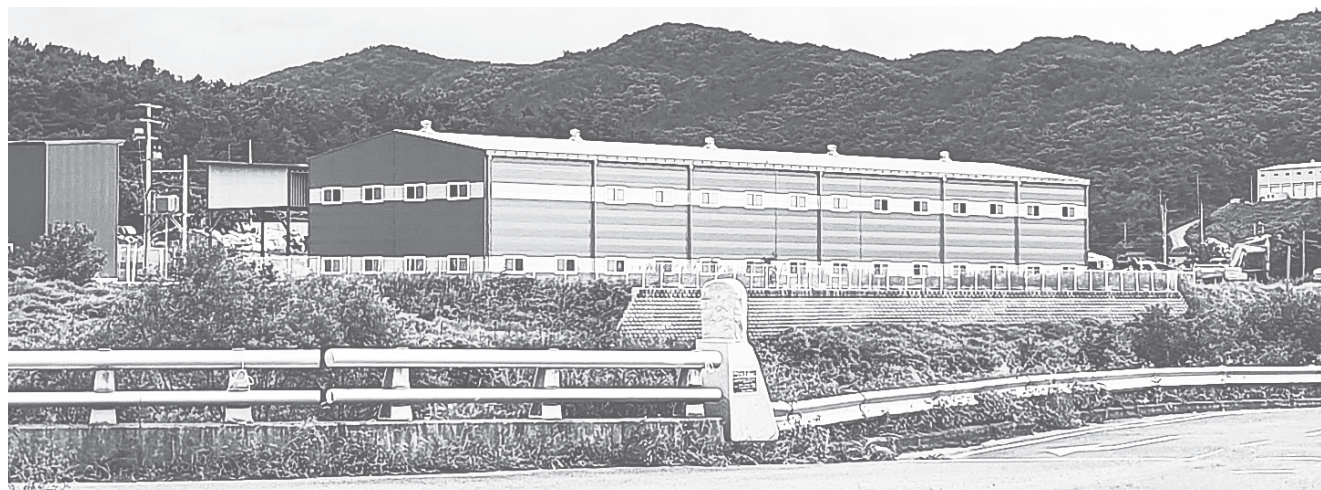
이 올라오면서 뒷거래 의혹이 증폭됐다. 또 계약서 무효화와 관련한 서류에도 「D업체 실질 대표인 K씨와 고문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존재해 A씨의 연관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A씨는 "계약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증폭됐다. 이 소각시설은 결국 D업체 K씨가 주도했다. 이 각서에는 법적 공정을 단서로 시설 운영중에 피해발생, 민·형사상 책임, 가동중단요구, 주민들의 피해 요구사항 등이 세세하게 적혀있다. 두 개 마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전기금으로 ㉠마을에는 1억원, ㉡마을에는 5천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 의료폐기물 각서와 SRF 발전소 주민동의서, 용역계약서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퇴비화 하고 있는 DM영농조합법인과 인근 크고 작은 축산업체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이 특정 마을에만 지급되고 있고, 인근 천장산 풍력발전사업도 논란이 잠재돼 있어 고경면의 이같은 뒷거래 의혹불씨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동의 받아주겠다 5억원 용역계약-의료폐기물소각 설치 수 억원 발전기금 고경면사무소 존재가치 재발견...손·발 꼬꿍 묶어 두고 주민 갈등 해소 될까?



<사진설명=고경면에 SRF열병합발전소, 풍력발전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축사취취 등으로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있는 가운데 고경면 석계리에 SRF 발전소 전처리 공정인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자원순환과에 접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폐비닐 등을 반입해 분쇄하는 과정으로 SRF(일반고형연료)발전소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석계리 입구에 새로 허가신청을 해둔 공장 신축 모습>

이다"면서 동의서를 받기위해 사실상 A씨와 이장협의회에 집중됐다. A씨 등이 이들 주민들에게 활동비(5천만원)를 거둬가며 집회 등으로 사실상 SRF반대투쟁 선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월 느닷없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SRF측과 용역계약서와 의료폐기물처리업 설치를 위한 각서가 나왔다. 수억원의 금전이 오가며 뒷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5억원의 용역계약서에 앞에서 SRF 반대를 해온 A씨와 A씨가 고문으로 있는 야사지역 토지구획정리 주관사인 D업체가 포함되면서다.

계약 내용은 모든 문서와 정보는 비밀에 붙이기로 합의하고, 주민들의 합의와 동시에 SRF측은 D업체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주민 합의도 없이 이미 지난 5월 24일 계약과 동시에 5억원은 지급됐지만, 두 달여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 이행이 불발되면서 SRF측이 D업체에 계약 파기를 선언한 후 5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계약서상에 A씨의 이름

왔다. 확인 결과 계약서에 A씨의 이름이 올라간 것과 확인서에 A씨를 기록한 것은 D업체 관계자 K씨의 요구에 의해 SRF측의 B씨 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제공한 K씨 관련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SRF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업체의 K씨도 계약서와 관련해 A씨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자신의 생각이 미숙한 탓이다"며 시인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의혹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 A씨와 D업체와의 관계 의혹

A씨가 D업체의 고문을 맡고있어 주민 일각에서는 "A씨는 우리와 함께 SRF반대 투쟁을 했는데 주민동의서 댓가로 5억원을 받는데 동의했으니 없다"면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A씨는 D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야사 토지구획정리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K씨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온 SRF발전소 주민동의 계약에 대해 A씨가 모를리 없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A씨가 작성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각서가 각 이장들에게 건네지면서 의혹은 더

만원씩 각각 지급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2천만원과 1천만원씩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A씨는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각서를 만들었지만 이 각서를 이행하려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 할 수 없는 기준이어서 사업 진행이 불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소각시설에는 주사기와 폐합성수지제품의 의료폐기물이 40%정도 된다"면서 이대로 가동하면 1년도 안돼 문을 닫을 것이며, 각서를 숨기면 투자자들에게 사기가 되어 결국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경면 이장 000씨는 "A씨가 SRF 발전사업은 극구 반대하면서도 오히려 코로나19 시대 SRF보다 더 우려스러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주민 동의도 없이 요구사항을 단독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반대해야 할 자신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한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이같은 뒷거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고경면 사무소 역할 없었나?

한편, 고경면은 이번 사태에도 중립을 이유로 손발을 꼬꿍 묶어두고 있다. 주민들의 갈등 해결에 면사무소 존재 가치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행정은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화합의 중심체다. 그러나 면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답변이다. "목소리 높은 특정인들에 대한 기피현상이다"는 한 이장의 일침이 이유있어 보인다.

이런 반면 면사무소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업체들이 철수 하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수용하던지 용단을 내려 사태를 조기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업체와 주민간 강대강 상태로는 발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주민 갈등 새로운 불씨

한편, 5억원 용역 파문에 이어 K씨는 소송을 해서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SRF 발전소 전처리 공정인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이 석계리에 들어서기 위해 자원순환과에 허가신청이 접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폐비닐 등을 반입해 분쇄하는 과정으로 SRF(일반고형연료)발전소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

당초 SRF 핵심 업체인 주식회사 '지웰'(대표 B씨)은 현재 한기실업(대표 박 모씨)에 매각(계약)되면서 회사 명칭은 '지웰'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용 섬유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있는 대기업 웰크론 그룹의 자회사인 웰크론타입이 지웰에 시공참여의향을 체결하면서 SRF 추진열의를 불태우고 있어 반대를 위한 주민들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만약 이번 5억원의 주민동의서 용역계약 파장으로 SRF 매각(계약)이 파기 될 경우 그 책임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돈이 건넨간 두달간 5억원의 행방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상에는 주민동의서를 완성한 단계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5억원이 사실상 동의서 작업과 무관하게 시간만 허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D업체 K씨 및 또 다른 '지웰'(대표 B씨) 등의 연쇄적 마찰이 우려돼 고경면의 이번 뒷거래 파장이 우려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 화이자백신 2차 접종 후 9일만에 56세 남자 사망

가족, "기저질환 없었다. 백신 후 몇 시간만에 쓰러져" 부작용 주장

경북 영천에서 지난 9월 13일 지역 한 내과에서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받은 화북면 56세 A씨(남)가 22일 사망했다. 백신 접종 9일만이다.

앞서 지난 8월10일경 화이자 접종 후 한 달만에 호흡 곤란을 일으켜 119로 병원 이송 도중 숨진 B씨

이후 두 번째 사망이다. A씨는 부검 후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보건소와 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숨진 A씨는 13일 오전 10시께 화이자백신 2차접종 후 오후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이날 오후 5시 20분께 포항 성모병원으로 이

송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가량 긴급 혈전제거 수술을 하고 다음 날인 14일 오후 경북대학교(대구)로 이송돼 7일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9일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등은 "A씨가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맞은 당일 호흡곤란으로 긴급 혈관(혈전제거)수술을 받았지만 7일간의 약물치료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프레시안(언론) 등에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북대병원에서 밝힌 A씨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지난 8월 10일경 접종 후 한달여만에 사망한 B씨에 대한 부검 최종 결과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가 밝혔다.

영천, 깐마늘에서 다진마늘로... 설비 구축 사업 선정 8억 확보

깐마늘 구매량 올해 42억원 내년 다진마늘 70억 확대 계획

영천 마늘가공산업이 깐마늘 넘어 다진마늘 시스템으로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반기 '2021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마늘가공분야) 도비 공모사업'에 ㈜우진농업회사법인에서 '다진마늘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사업비 8억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로 우진농업회사법인은 농식품 제조·가공기업의 신·증

설 및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영천시는 깐마늘 생산·유통 단계에서 다진마늘 시스템으로 확보로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진농업회사법인(대표 최진욱)은 지난해 깐마늘 연간 생산량은 2천톤 규모로 영천 마늘 구매액은 대략 42억원이며, 내년 다진 마늘 생산 및 유통을 대비

하여 2021년산 입고농협 수탁마늘 1,477톤, 70억원 가량의 마늘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마늘가공식품 유통 대기업과의 MOU 체결을 추진하여 영천 다진 마늘 제품 홍보 및 유통에 박차를 가하고, 영천 마늘산업특구의 식품표시·광고법 특례에 따른 영천시장 품질보증 표시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유도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역전파출소 83년만에 남부파출소로 새 등지

내년, 인구3만 ↑ 지구대 승격 전망



완산동 주민행복센터 옆 위치 순찰차량 4대, 31명 경찰관 남부·완산·서부·중앙동 담당

영천역 앞에서 시민들의 안녕을 지켜오던 역전파출소(남부파출소 역전지소)가 개소 83년만에 자리를 옮겼다. 완산2길 43 859㎡(260평)에 건물면적 294㎡(88평) 지상 2층으로 9월 28일 준공해 새로운 환경에서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준공식은 갖지 않는다"면서 "새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천경찰이 되겠다"며 준공 기념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새로 준공된 남부파출소는 1938.03.01. 영천역 앞 (완산동 891번지) 역전지서로 개소해 1989.10.26. 개축한 후 30년이 경과한 낙후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한 등 민원인과 경찰관

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현재 위치는 완산동 주민행복센터 옆 영천시 완산2길 43번지다. 지난 2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 22일간의 공사를 거쳐 이날 완공됐다.

한편 남부파출소는 순찰차량 4대와 31명의 직원이 남부동과 완산동, 서부동, 중앙동 4개동을 관할하며 4개동의 인구가 3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쯤에 지구대로 승격될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화랑설화마을, 개장 후 두 번째 야간운영

28일부터 3주간

지난해 10월 27일 개장한 영천 화랑설화마을이 개장 후 두 번째 야간운영을 진행한다.

영천시는 추석 연휴가 끝난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야간운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휴가철과 방학을 이용한 야간 연장 운영에 대한 호응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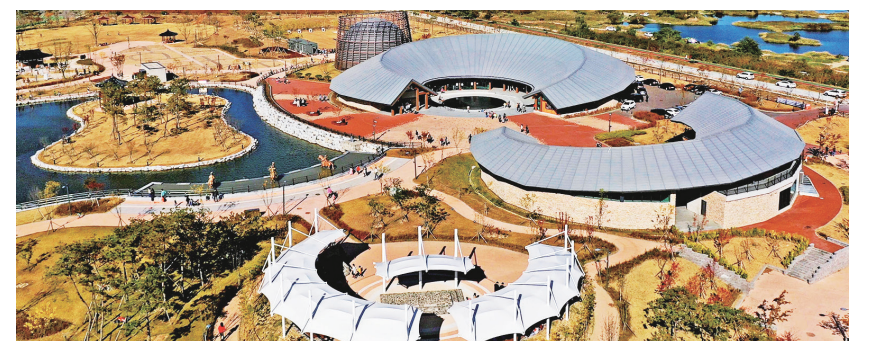
이번 야간개장 동안 전시·체험시설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8시까지, 야외시설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그밖에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놀이터가 신화

랑주제관 전정에 마련돼 있고, 내달 2일과 3일에는 이연화무용단의 공연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들간 버스킹, 현대무용, 검무 등 공연이 화랑설화마을 야외 대공연장에서 게릴라식으로 이어지고, 어린이 화랑 선발 이벤트가 진행된다. 어린이 화랑 선발 이벤트 참가자는 사전 모집 예정이다.

화랑설화마을은 영천시 금호읍 거여로 426-5 일원 11만1,938㎡(3만3,860평)위에 건축면적 3,967㎡(1,200평), 연면적 5,432㎡(1,643평·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총 483억 8,200만원이 투입해 신화랑 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화랑4D동영상관, 설화재현마을, 국궁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돼 있다.



99

만원

영국화원

영천 전문장례식장

고급수의/관/도우미/상복/장의버스/입관용품

(054) 331-4444

(영천영대병원 옆)



영천시, 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 받아

영천시장학회, 모금·장학생 선발·사업비 부당 지원 ‘기관경고’

보현산 글램핑, 불법 밝혀져

영천시가 지난 8월12일 공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영천시와 영천시장학회가 각각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영천시는 경북도의 감사결과 요구에 의해 지난 27일 징계심위위원회를 마치고 6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천시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자의적 선발, 부당한 사업비 지원 등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을 훼손해 이같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특히 법에서 정해진 기부금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2018년부터 2021년 5월말까지 모두 1만3,283명으로 부터 총 35억9,300만원의 장학금을 법률을 위반해 모금하였고, 자발적기탁금 접수 사실조차 경북도와

행안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북도는 영천시 자양면 소재 보현산 글램핑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불법 운영 글램핑장 관리 소홀, ▲행정처분 공정성 의무 위반, ▲출장 및 출장보고서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관리 직무 태만, ▲위법사항 조치 미이행, ▲사용료 불법징수 등 영천시의 글램핑장 관리에 대한 총체적 위법사항을 적시해 영천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2017.7.28 불법 글램핑시설 개장식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자양면장이 참석해 불법을 인지하였고, 또 글램핑장 불법 사용료징수에 영천시가 2박 3일 동안 1백44만8천 원의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변경등록 및 미등록으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데도 사고가 난 2018.7.28까지 1년

동안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철거명령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아 총체적 관리 부실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태만, 복무 규정 위반 등 7개 항목으로 영천시에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특히 도는 또 운영자 최 씨에 대한 공무원의 고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야영작업 등록업무 지침)에 따르면 야영작업 경영자는 시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 15일), 3차(사업정지 1개월), 4차(등록취소)에 걸쳐 행정명령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영천시는 모든 과정 없이 사고 직후 곧바로 고발 조치해 최 씨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글램핑의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등록

2021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공개

◆ 2021. 5. 14. ~ 5. 28. (10일간) 경상북도 감사관실 15명의 감사반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대상이어서 미등록으로 고발한 것이 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공개한 영천시 별 내립 촌 캠핑장 민원에 따른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6조를 들어 「관광업 이용시설을 등록한 자가 부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영천시의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라”라는 해명은 맞지 않다.

또 이번 경북도 감사에서도 「변경등록 없이 글램핑장 10동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장지수 기자

농가 효자 ‘청도반시’ 축제 10월 8일~17일까지

청도천 둔치 일원 온오프라인

청도군 농민 주소득 명품 ‘청도반시’ 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청도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이번 축제는 청도천 둔치와 청도읍성, 청도 소싸움경기장 곳곳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이같이 밝혔다.

청도반시는 씨없는 감으로 청도군 농가 주소득 특산물이다. 지난해에는 경매장 수취가격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 호황을 누렸고, 올 초에는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에 99.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돼 청도군의 효자 농산물로 입증되고 있다.

이번 축제를 군은 코로나19를 의식해 비대면과 드라이브스루로 개최한다. 또 개막식과 공연 관람도 자동차

LIVE 2021 온오프라인 청도반시 축제

오프라인
10.09(토) ~ 10.10(일)
청도천 드라이브 축제장
청도읍성·청도소싸움경기장 일원

온라인
10.08(금) ~ 10.17(일)
청도반시축제 홈페이지
유튜브 "청도반시TV"

개막식-드라이브인 반시콘서트
10.09(토) 18:00 ~ 청도천 드라이브 축제장
※ 공연관람 입장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www.청도반시축제.kr

메탈리, 설하문, 류지광

[드라이브 in 농특산물 판매장]
행사장소: 온영남개, 운영시간: 청도천 10.9(토)~10.10(일) 11:00~20:00

내에서 관람하도록 하고, 청도반시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자(40%)가 청도반시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에서 '청도반시'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60%)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축제장에서는 개막식, 반

시콘서트, 반시시네마, 가을음악회 등 비대면으로 현장공연을 관람하며, 청도읍성 일원에 '반시터널', '감물염색천 터널' 등 포토존을 꾸며 관광객을 맞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우성케미칼=친환경수지 증설 50억원 투자 MOU

영천시 북안면 소재 (주)우성케미칼이 지난 9월29일 영천시에 50억원 투자와 12명의 고용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영천시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시장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우성케미칼과 친환경 생분해성수지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우성은 영천시 북안면에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업에 납품할 친환경수지 생산을 위한 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12명을 신규 고용을 약속했다.

우성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와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 능력, 제품 양산을 위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기업들에 다양한 제품군을 추가로 개발하여 납품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변화하는 산

업환경에 따라 지역기업의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 화북면 오산지구 사업비 408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

영천시가 행안부로부터 ‘2022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화북면 오산지구에 총사업비 408억원(국비도비시비)을 확보했다.

앞서 영천시는 또 행안부 주관 ‘2022년 신녕면 신양지구 풍수해생 활권 정비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90억원(국비245억원, 도비73.5억원, 시비171.5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행안부 주관 두 건 공모에 총 사업비 898억원이다.

오산지구 정비사업은 화북면 오산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오산천 4.93km 구역과 공덕리 소하천인 땡땡이천 1.51km 일원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은 하천폭이 협소하고 제방이 낮으며 교량 부근 통수량이 부족해 집중호우 시 월류로 인한 주변 주거지, 농경지 등에 있어 침수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2011년, 2012년에 제방이 넘치면서 주택 63동, 농경지 10ha가 침수돼 긴급 복구를 실시했다.

[청도군]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

거동 불편 고령자·장애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이다. 신청 방법은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요청 ▶ 읍면 직원이 가정방문, 신청서 접수 ▶ 국민지원

금 지급준비 완료 통보 ▶ 읍면직원이 재방문·지급(선불카드)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거동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이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사회교육 단기특강 모집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가을 시민사회교육 단기특강생을 지난 27일부터 모집했다.

이번 단기특강은 참여연령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수업시간은 평일 낮과 수요일의 경우 야간과 토요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과목은 공예강좌 4개반, 인문·교양강좌 2개, 음악·미술분야 2개 강좌와 레저·스포츠강좌 2개, 음식·디저트 3개 강좌 등 총 144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9/27일 ~ 10/1일까지 영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yc.go.kr/edu)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다.



천년의 불꽃 문경찻사발 축제...10월 1일부터 10일간 꽃피운다

온·오프 병행 온라인 경매 도예명장 작품 감상

올해 23회째를 맞는 '문경찻사발 축제'가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이란 주제로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과 온라인플랫폼(www.sabal21.com)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문경찻사발축제'는 정부 공식 지

정 명예관광축제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 전시되는 '기획전시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명장 백산 김정옥, 도천 천한봉, 묵심 이학천 거장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따로 마련된 문경도예명장전에는 문경 도자기 명장 월봉 오정택, 황담 김여주, 청마 유태근, 도광 김경선, 경북 최고장인 율파 이정환과 우남

김경식, 경북 무형문화재 문산 김영식과 미산 김선식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별행사로 1300℃ 뜨거운 가마 앞에서 혼을 불사르는 사기장들의 삶을 만나 볼 수 있는 '사기장의 하루' 프로그램은 축제기간 1일 3회(10시, 13시, 15시) 야외 공연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또 지난해에도 인기를 모았던 '문경찻사발 요장 스탬프 투어'는 26개

요장을 방문해 작가와 만나고 요장별 차별성 있는 작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요장투어 스탬프 개수에 따라 찻사발 나눔잔이 선물로 증정된다. 특히 온라인 경매와 랜선번개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축제를 운영해, 집에서 누구나 문경찻사발축제의 풍성한 콘텐츠를 누릴 수 있게 구성됐다. 문경찻사발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문경찻사발 온라인 경매'는 총 6회(10월 1일~4일, 9일, 10일)에 펼쳐진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 속 즐거움을 안겨 주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최



9월 30일부터 15일간 도정·교육행정 문제점 지적 정책방향 초미의 관심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6회 임시회가 9월 29일 개최돼 오는 10월 14일까지 15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 동의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김상조 경북도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발의돼 있어 지난 경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학습비 불평등 지급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려있다. 9월 30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차양(경주), 박영환(영천), 박용선(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경북도교육청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전망이다. 박차양 의원은 '경주관광과 원전산업'과 '따뜻한 경북교육'과 관련하여, 박영환 의원은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사업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응전

략'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 현황과 경북도의 선제적 시행'에 대해, 박용선 의원은 '화재예방 대책'과 '지역사랑 상품권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월에 실시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도민들과 최일선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전하면서, 체계적인 준비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경북도, 내수면어업인 고소득길 열렸다

경북도가 토속어류인 '동자개' 치어 대량생산에 성공해 경북지역 내수면어업인 고소득 시대를 밝게하고 있다. 경북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는 24일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 '어린동자개'대량 시험생산 연구를 첫 시 작해 3개월 간 기 른 몸 길이 4cm 이 상의 어린 고기 20만 마리를 생

'동자개'는 노란색의 바탕에 등 과 몸의 옆면 중앙에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매운탕과 찜 등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kg당 45000원(자연산 기준)에 판매되는 고소득 고급어종이다. 현재 안동호와 임하호에서는 내수면 어업인 40여명 정도가 붕어, 메기, 동자개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토속어

'동자개' 치어 대량생산 시험 성공
안동·임하댐 15만 마리 첫 방류
향후 50만 마리 생산능력 갖춘다

산하는데 성공해 이날 안동댐 내수면 어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어린동자개' 15만 마리를 첫 방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향후 대량(50만 마리 이상)생산 시스템을 갖춰 치어 방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류산업화센터는 지난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수면 산업 혁신성장 2030!'을 목표로 지난해 참마자 5만 마리 방류에 이어 올해 7월 버들치 12만 마리, 이번 '어린동자개'를 방류해 고소득 어자원을 지속해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여 망설이지 마라!" 영천시 첫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 유공자 표창’ 수여

영천시 첫 청년의 날 기념식이 지난 24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최기문 영천시장과 조영제 의장 등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으로는 제2회 짜지만 영천시는 1년 늦은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해 이날 첫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해 매년 9월 세번째

째 토요일이다. 올해 청년의 날은 9월 18일로 추석 연휴기간이어서 이날 열렸다.

기념식은 ‘청년오픈스테이지’, ‘청년오픈토크’, ‘청년오픈마이크’로 진행되고, 청년을 위해 노력한 청년활동가들에게는 ‘청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영천시는 올해 1월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했고, 6월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7월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 설치, 9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마치고 본격 청년 권익 보장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한 셈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 완료

총사업비 60억원 들여 여울·어도, 생태공원 조성

영천시는 영천댐 거처 낙동강 2차 지류인 자호천(하천 총연장 36km) 일부구간을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 구간은 영천시 임고면 양향교 ~ 조교동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6.7km, 2017년부터 2021년(5년간)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여

울 및 어도(5개소), 생태공원, 징검다리 등을 조성한 것이다.

기존 콘크리트 고정보 아래쪽에 자연석 여울을 조성하여 물살을 빠르게 함으로서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활한 어류 이동을 위한 통로인 어도를 설치하여 수생태계 균형을 영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하천 내 기존 수질오염원인 축사를 철거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옛 추억을 되살리는 징검다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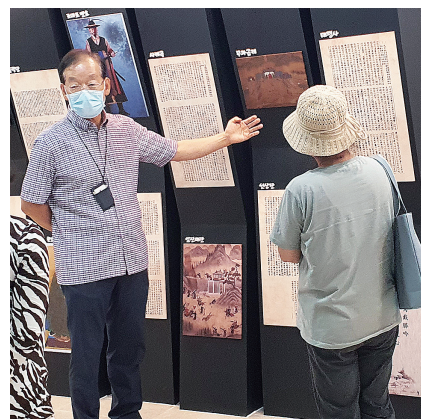
가을에 노계 박인로 선생의 시적 감성을~

노계 인문학강좌 11월 27일까지 북안면 노계문학관 매주 토·일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 박인로 선생의 문학적 감성을 일깨우는 인문학 강좌가 개설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일홍)는 대구·경북 시·도민과 노계 문학의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북안면 도천리 노계문학관과 도계서원일대에서 「노계 인문학강좌」를 개최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계 박인로는 1561년 6월 26일 영천 북안면 도천리 정빈한 양반가에서 출생해 독학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13세에 대승음(戴勝吟)을 지어 세인을 놀라게 한 영천의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필묵을 잠시 접고 무인으로서 호수 정세아 의병장 휘하에서 영천성 복성 전투 등 의병으로서의 혁혁한 공로로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반열에 올랐다.



39세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선전관 제수를 받고, 1605년 선조 38년 통주사가 되어 전쟁가사 「선상탄」을, 52세에 군문을 떠나 노주(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서 자연을 벗삼아 우거하며 「노계가」를 지었다.

노년에 도학과 성리학에 심취하여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잃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선비정신(仙秘精神)을 실천하면서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유도(儒道)로 넘겨낸 삶을 산 노계는 67수의 시조와 11편의 가사와 110수의 한시를 남긴 조선중기의 시인이다. 그는 송강 정철, 고산 윤선

도와 더불어 조선3대 가사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영천의 큰 인물이다.

이번 「노계 인문학강좌」강좌는 주 2일(토·일요일)동안 매일 오전,오후 반으로 구분해 9월에는 6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체 강좌는 「권주가」를 시작으로 23개 강좌가 있다.

영천시민인 김씨(여.63세)는 “송강과 고산과 달리 불굴의 의지와 질박한 심성으로 그 당시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면에서 안빈낙도하는 삶과 작품세계가 현대의 물질만능의 시대에 참모로 가르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후대의 우리들이 배우는 바가 많아 유익한 강좌가 되었다.”고 했다.

사업회 관계자는 “문학전공 전·현직 대학교수진 7명의 심도있는 강의로 노계선생의 문학적 감성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기를 권해 본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noge.or.kr>를 확인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영락원 장례식장

관,수의,도우미,상복
장의버스,입관용품

99 만원

24시간 상담가능 **336-4444**

경북도교육청 누리과정 교육 재난지원금 차별지원 해결 실마리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경북 21,875명 1인당 30만원 올해내 지원 청신호

어린이집을 제외시켜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경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해결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해 의회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상하기 위해 이달 중 도내 모든 유·초·중고 학생 29만5천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까지만 지원대상에 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속 빠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까지는 교육

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 교육부 예산으로 어린이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21,875명이 누락된 것이었다.

특히 이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경북도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10만원씩, 경기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이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북도교육청만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전국은 물론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등 일부 학부모들은 경북도교육청에 항의방문 하는 등 "아이들을 우선으로 보지 않고 차별대우 하므로써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30일 경북도와 교육청 및 경북도의회에 집단 집회를 신고 해둔 상황.

그러나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교육부 산하 유치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까지 누리과정에는 공히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대부분 의원들도 이같은 조례가 발의된 만큼 통과되면 누리과정의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례 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 한 관계자도 "현재 경북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는 모두 21,875명이다"면서 약 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년 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재난지원금 차별지원문제가 해결에 청신호가 쬐졌다.

한편, 경북도내 어린이집 0세~5세 아동은 모두 53,156명이며 0~86개월 미만 아동도 27,649명으로 전체 80,805명으로 향후 이들 모두에게 이같은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비용총계 금액은 모두 242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수 기자



훈훈하게 함께해요-장학금과 이웃성금 기탁열기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조규옥(85)씨가 지난 9월 23일 평소 모은 용돈 500만원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면서 훈훈함을 전하면서 영천시장학회에 기탁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 씨는 화남면 출신으로 "학창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모교의 상황이 예전에 비하면 학생수도 많이 줄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여기에 최기문 이사장은 "어르신의 고향에 대한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다가올 미래세대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보내주신 귀한 나눔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천시장학회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통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 외에도 이달에만 영천시장학회에 4건에 810만원의 장학금이 기탁됐다. ▲영천시청 태권도단(300만원) ▲한국폴리텍대학 로보캠

퍼스 교수 박주열(110만원) ▲환경실천연합중앙회 정광원 상임부회장(300만원) ▲김호일(100만원) 씨가 각각 기탁에 동참했다.

또 지역 각 단체들도 자원봉사와 이웃 성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1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제6지역 영천·조양·보현·스타라이언스클럽에서 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보조수단인 보행보조차량 40대를 기증하는 등 많은 곳에서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서부생활안전협의회(마스크 2040장) ▲의명 기부단체(백미10kg, 25포) ▲스타사랑봉사단(단호박 200박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식료품 15박스) ▲임고면 생활개선회(김 선물세트 50박스) ▲동신자동차상사(라면 20박스) ▲새마을문고 대구시동구지부 신태룡 회장(100만원) ▲화북면 청년회, 자천중 총동창회(영천사랑상품권 204만원) 등이다. 장지수 기자

예비 학부모에 '처음학교로' 안내

영천시교육지원청, 연수 실시

영천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은 9월 29일 관내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연수 및 2022년 처음학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원격수업 시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아교육용 콘텐츠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해 영천중앙유치원 반영란 원장

의 특강으로 '처음학교로'시스템 소개 및 유아모집·선발 주요 일정 이뤄졌다.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1일(월)부터 우선모집 원서 접수·선발(추첨)이 이루어지며 11월 17일(수)부터 일반모집 사전 원서 접수, 일반모집 본 접수·선발(추첨) 등으로 진행된다.

박명호 교육지원과장은 "2022년도 유아모집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소방서, 환절기 맞아 급성 심정지 응급처치 홍보

영천소방서는 환절기 기온차가 커지며 심뇌혈관질환 사망과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알리고,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이고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2019 급성심정지조사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발생건수 30,782건 중 70세 이상에서 15,843건으로 전체 5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해 소방서는 노인 및 주변인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매체(신문·방송 등)

및 전광판 활용 집중 홍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통한 SNS 홍보 등이다.

김재훈 서장은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심뇌혈관 질환의 증가로 목격자에 의한 올바른 응급처치가 생존을 향상에 필수"라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교육을 받아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The 102nd National Sports Festival
2021. 10. 9 (토) ~ 10. 12 (화) / 4일간
영천체육관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영천시, 영천시의회

제철 맞은 영천 포도, 전국 롯데마트 특판행사에서 만나보세요

지난해 113개 지점 판매
올해 330톤 판매 예상
소비자 맞춤 판촉행사 추진

영천시는 포도(샤인머스켓, MBA) 출하철을 맞아 전국 롯데마트 107개 지점에 '영천 포도, 롯데마트 특판행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9/23일~29일까지 MBA(머루포도)를 10/7일~13일까지는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실시해 총 330톤의 영천 과일을 판매(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활성화를 위해 행사기간 중 최기문 영천시장, 조영제 영

천시회의회의장, 조상진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장 등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무료시식과 판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20회 영천과일축제 일환으로 지역 농협과 함께 소비자 맞춤 판촉행사를 추진해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롯데마트 판촉으로 영천시는 2019년도에는 샤인머스켓 30톤, 머루포도 225톤, 거봉46톤이 출하해 서울 잠실점 등 전국 121개 점포에서 판매전을 펼쳤으며, 지난해에는 롯데마트 울산점을 방문해 전국 113개 지점에서 판촉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장지수 기자



기획 연재



김효정 기자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재조명

평생 허례허식과 거리가 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학에 전념

지난 9월 4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북안면 도천리 노계문학관과 도계서원일대에서 「노계 인문학 강좌」가 열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일홍)에서 노계선생의 문학적 감성을 대구·경북 사·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강좌다. 이에 맞추어 본지가 가현재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선비정신(仙秘精神)을 실천한 노계선생의 일대기와 그의 문학관을 재조명한다.

<편집자 주>

① 영천에 뜬 별, 영천에서 지다.

노계문학관은 영천시 북안면(신평탑골길 93-3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북도(영천시 포함)의 지원으로 2018년 6월 개관되었다. 노계박인로 선생은 송강정철, 고산윤선도와 함께 조선3대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 분의 유명세에 비하면 선생은 출세에 뜻을 두지 않고 가난한 선비로서 인간의 정도로 사서사인지 현재 인터넷에 검색결과도 내용이 적다.

박인로 선생은 1561년 영천 북안면 도천리에서 태어났다. 가난으로 제대로 글공부를 하지 못하였으나 13세에 '대승음'이라는 한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32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영천의병장 정세아의 휘하에 참전하여 세운 공로로 원종공신 명단에 들었다. 38세에 경상좌도병사 성윤문의 막하에 들어가 성윤문의 청으로 가사 '태평사'를 지었다. 39세에 무과에 통과하여 수문장 선전관을 제수받았다. 무인으로 전쟁터와 군에서도 붓과 먹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본인의 문학적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인생중반을 넘어 41세에는 이덕형이 도체찰사가 되어 영천에 왔을 때 시조 '조흥시'를 지었다. 45세에 여름 통주사가 되어 '선상탄'을 썼다. 50세에 조라포 만호로 제수하였고 51세 이덕형의 별서에 종유하면서 '사제곡'과 '누항사'를 지었다. 이듬해 만호직에서 물러나며 사졸들이 송덕비를 세웠고 독락당을 찾아 '독락당'을 지었다. 59세에 울산 초청에서 시조 '신유추여정한강옥우울산초정'을 지었고 69세 장현광을 따라 입암에 노닐며 시조 '입암29곡'을 지었다. 70세 경상도 관찰사 이명에 의해 용양위부호군의 우로를 받았으며 72세 한음의 아들 이여규의 청으로 가사 '상사곡'을 그의 동생 이여환의 청으로 가사 '권주가'를 짓고 74세 이후 시조 '오류가', 75세 '영남가' 76세 경주시 산내면 노계곡에 유거하면서 '노계가'를 지었다. 77세 장현광을 따라 입암에서 종유하며 '입암별곡'을 지었고 1642년 82세로 영천 도천에서 별세했다.

노계문학관 전경



일생을 나열한 것에 2가지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시조 67수, 가사 11편, 한시문 110수로 끊임없는 문예활동을 했다. 두 번째는 성(誠), 경(敬), 충(忠), 효(孝)를 평생에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선비와 문인만의 삶보다 사람을 대할 때 느끼는 공경, 나라에 충성하는 도리,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제간의 우애 및 친구와의 우정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시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영천 3성인 중에서도 포은정몽주선생, 최무선장군은 생가 및 과학관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해

마다 영천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 영천에서 태어나고 영천에서 후반기를 보내고 영천에서 별세하셨음에도 영천시에서는 유명세를 타지 못했다. 평생을 허례허식과 거리가 멀게 사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학에 전념하신 선생님을 영천시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높은 벼슬을 하고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의 결과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만 몰두한다면 후세의 우리는 위인의 가치를 달리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본 기사는 노계문학관 제공 '노계집' 자료 참고>

[시체를 넘고 피를 밟으며 나라를 지켰대]

노계 박인로는 어려서 부터 독학으로 13세에 대승음(戴勝吟) 칠언구시를 써서 세인을 놀라게할 정도로 문학재능이 뛰어났다. 그러나 선생은 출세영달(出世榮達)을 멀리하고 32세에는 임진왜란에 투신해 호수공(靖海) 의병장에 참전해 나라를 구했으며 39세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해 수문관·선전관·만호의 직위에 올랐지만 32세에서 50세까지 궁마(弓馬)를 익혀 시체를 넘고 피를 밟으며 나라를 지키는데 마음을 쏟았다. 문학에 둔 뜻 보다 오히려 애국에 더 두터운 마음을 실었다는 의미다.<사단법인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노계의 사상과 문학에서>



분만산부인과(제이병원) 설립 1년 - 분만 100건 달성

영천시 대대적 홍보 요청,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영천시가 최기문 영천시장 공약 1호사업 영천분만산부인과(J병원)에 대해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지난해 9월 개원 이후 운영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대대적 홍보를 요청했다. 이달 들어 벌써 3번째다.

J병원(이하 산부인과)은 지난해 9월 개원해 올해 9월 27일까지 100명의 분만건수를 기록했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한달 평균 8.3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이다. 영천시 한 달 평균 신생아 탄생 숫자는 50여명으로 지역 산모 약 16%가 J병원에서 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J산부인과는 지역의 열악한 분만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당시 28억원의 보조금과 개원 후 40년간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사, 간호사)로만 매년 5억원씩 지원되며, 산모에게는 분만과 관련해 약 80~100만원의 분만 지원비 등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우리 지역이 분만취약지에서 벗어나 분만산부인과가 개원한지 1년이 됐다.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이루어져 아이와 임산부 모두 건강하기를 기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영천시가 전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 의료기관 영천제이병원은 개원 1년 만에 분만 100건을 달성했고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지난해 1,104건 진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17일까지 12,285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9월~올해 8월까지



영천시 신생아 출생은 558명으로 월 평균 45.2명이 태어났다. 영천시 산모들의 영천시 지원 분만산부인과

평균 이용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월은 15명에서 7월 8명, 8월 7명으로 분만돼 지난 5월26일 분만산

부인과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분만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장지수 기자

매주 수요일 '영천이야기 솔솔' 'The(더) 공감 인문학' 특강

9월 27일부터 수강생 모집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는 'The(더) 공감 인문학 10월 특강'을 '근현대 영천 다시 읽기' 주제로 매주 수요일 4차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 영천 다시 읽기'는 18세기에서 20세기 영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간 주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다양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구술 채록된 기록들, 사진 등 차곡차곡 쌓인 영천의 풍경과 기억들을 소환하여 시민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

간으로 꾸며진다. 강사는 지역기반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는 강구민, 전석택, 송수열, 이중기 등이 참여한다고 학습관은 설명했다.

수강신청은 9/27일 ~ 10/1일까지로 19세 이상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수강료는 5,000원이다.

영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yc.go.kr/edu)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평생학습관(☎3339-7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장애인종합복지<=> KT통신, 바우처 업무협약

지역장애인 통신사각지대 해소

영천시장에인종합복지관(관장 권순종)과 ㈜KTCS(본부장 김상민)는 지역장애인의 통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KTCS와 KT는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KT-WIFI 결

합 1년 무상지원 및 LED형광등 교체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복지관 이용자 대상 통신케어 및 봉사활동과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확대 예방활동 연계 및 지원 등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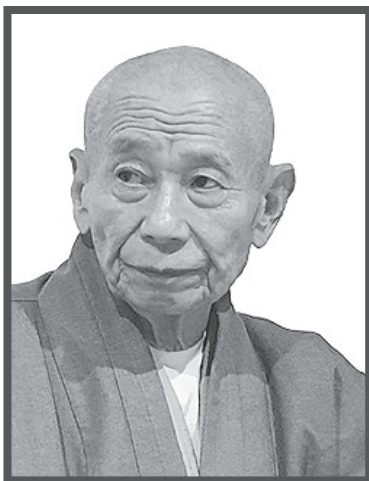
김상민 본부장은 "오늘 협약을 통

해 장애인들의 정보통신 환경개선 및 정보접근성을 높고 양질의 IT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6.25때 문재인 父 생포 증언한 윤월스님 입적

<문용형>



님께서 외출을 자주하시고 혼자서 여행도 잘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셔서 이날(13일)도 서울로 출타하시는 줄 알았는데 함께 동행했던 A여행사 대표로부터 14일 새벽 5시에 갑자기 각혈을 시작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시신은 이날 오후 7시께 동해의료원에서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옮겨 3일장을 치를것으로 알려졌다.

故 윤월스님은 향년 89세로 고등학교 2학년때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1950.8.29 영천 신녕 전투에참가해 영천 보현산 서남쪽 400고지 인근에서 당시 동료 학도병 2명(스님 포함 3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父문용형을 생포했다는 역사적인 증언했다.

장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父 문용형을 6.25 전쟁때 생포했다고 증언했던 윤월스님이 14일 오전 5시경 입적(사망)했다.

스님의 소속 '갑사(寺)' 관계자에 따르면 "스님은 13일 서울로 가신다며 절에서 나가셨는데 사망 통보는 14일 오전 동해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소 스

"내 경로당 내가 스스로 청소한다"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 11월까지 시범 운영

영천시 관내 150여개 경로당에 9월 24일부터 경로 회원 스스로 경로당을 관리(깨끗한 환경 유지)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는사업이 시범운영된다.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는 노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150개소에서 '경로당 깔끄미 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지난 13일부터 4일간 참여 경로당 회장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활동 내용 및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깔끄미 사업'은 경로당 실내·외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는데 따른 지원사업이다.

11월까지 시범 운영으로 150개소 경로당에 150명의 깔끄미 참여자가 배치되어 경로당 청소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꼭 신고하세요!

화재오인 행위 미신고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

경북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동정

강도 높은 국회 결산심사



이만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격으로 국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를 단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20년에는 네 차례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집행되면서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면서 "집행과정을 철저히 살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바로잡아 한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준공식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오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열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해 "이번 연구소는 한국의 신약개발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글로벌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경북도는 바이오·제약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까지 5년간 총사업비 458억원(국비 229)을 투자해 조성한 바이오 신약개발 핵심 연구시설이다.

제1회 영천 청년의 날 환영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24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열린 제1회 영천시 청년의 날에 참석해 "청년의 날을 계기로 우리 영천 청년들이 참여·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 3개면 경로당에 살균박스-체온계 비치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27일 건강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개면(각남, 각북, 운문면) 경로당에 살균박스 및 체온계를 비치하고 코로나19 시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이 군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림

구독료 안내

본지가 두 달여만의 휴간을 지나고 재발행을 시작합니다. 오직 언론의 사명을 다해 독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이번 신문 발행과 함께 10월에 밀린 구독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지난 6월은 발행이 불규칙하여 구독료를 면제하였으며, 이번에는 휴간으로 7~9월 3개월간 추가 구독료를 면제하는 등 총 4개월 구독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나 송구하오니 밀린 구독료는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천신문 구독료는 월 5,000원 입니다.

<(주)영천신문 대표 장지수>

한정에 장관 만나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건의

청도군 금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도 챙겨 한정에 환경부장관 "사업 필요성 공감...잘 챙기겠다" 답변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영천댐 상류(자양면) 마을 하수도사업 국비확보 협조를 특별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이 의원실과 청도군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은 지난 10일 청도군 둔치에서 개최된 올해 청도 새마을 환경살리기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참석한 한정에 환경부장관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건의를 해 긍정적인 답변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영천지역 환경

현안 외에 청도군 금천면(임당, 방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건의해 "잘 챙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영천댐상류 성곡, 충효, 용화 등 9개 마을과 관련한 하수도기본계획은 2025까지 국비 28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20억원으로 해당지역 800가구를 대상으로 배수·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지난해 11월3일 최종 승인해 이제 연차적 국비확보 절차만 남아있다. 이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건의를 이날 청도 행사장에서 한정에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긍정적인 협조 답변을 들었다. 장지수 기자

영천축협 김진수 조합장, 2년 연속 경북농축협 최고 CEO 선정

경북 농축협 중 생명보험 실적 1위 달성

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은 13일 영천 축산농협 김진수 조합장이 『경북 농축협 BEST CEO』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9년 제21대 영천축산 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돼 재임기간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북 농축협 BEST CEO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북 농축협 BEST CEO상은 ▲생명보험 추진 우수 ▲농업인 안전보험을 통한 농업인 보장 확대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농·축협 조합장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경북 농축협 명예의 상이다.

영천축산농협은 코로나사태로 침체된 지

역경제와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생명보험 추진을 통한 비이자수의 증진으로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특히 올해 8월에는 경북 농축협 중 생명보험 실적 1위를 달성했다.

김진수 조합장은 "이번 경북 농축협 BEST CEO 수상은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축산농협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지수 기자

찾아가는 이불세탁 빨래방 봉사 대한적십자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

영천지역 적십자 봉사단원들의 지역 취약 계층 돕기가 활발하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행보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회장 경월성)는 29일 독거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 등 약 4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 빨래방 봉사를 단행했다.



기고



김재훈 영천소방서장

「격세지감」 가을 맞이 안전을 선물한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요즘이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은 크게 변화되었고, 그

이승율 청도군수,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홍보 챌린지

호국의 소중함을 집에서 체험하자

이승율 청도군수가 코로나19 예방과 호국의 소중함을 집에서 체험하자는 뜻에서 경북 철곡군에서 개최되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

6.25 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철곡 지구에서 지구촌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 세계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백선기 철곡군수로부터 시작된 챌린지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의 터전을 몸을 바쳐 지켜 주신 호웅영웅들의 희생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로 인해 마스크는 사회의 필수품이 되어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면 챙기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우리의 입과 코를 가려주는 마스크가 자신과 다른 시민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법이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택화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법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50%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 사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실제로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다

수의 시민은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영천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장소 랩핑 및 벽화 홍보, 영천역·시청 전광판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방서는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보급률 100% 달성하고 일반가구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을을 맞아 이번 추석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자.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차익에 대한 과세
코로나19 보조금-경제위기 돌파-가상화폐 가치 상승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상황을 맞고있다. 대부분 나라들은 저금리 기조와 보조금 지급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애쓴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주식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세법의 미비로 가상화폐의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었지만, 신설세법에 따라서 가상화폐의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겨질까? 법인의 경우 원래부터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했다.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의 원천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열거하고 있는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세법개정에 따라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에 대한 소득을 열거하였고, 2022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이 계산되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여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상자산의 취득금액은 2021년 12월 31일의 가격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가상자산의 취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닌 채굴에 의한 것이라면 채굴에 들어간 비용이 취득금액이 된다. 즉, 전기료와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용이 될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도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가액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간의 공표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이 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특조법'소유권 이전해간 땅 찾을 수 있을까?

문 저는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30여년 전에 이웃마을에 사는 망자 '갑'으로부터 야산 2천여 평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았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특조법'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2020. 10. 20. 시행된 특조법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소유명의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국유, 공유 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 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 교환한 사람이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1명 이상 포함된 5명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한 후 보증사실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공고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이 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한 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해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또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처분을 해 놓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자,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한 자는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경우는 형사소송이 곤란하고, 또한 해당 보증인이 살아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허위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수집이 매우 곤란하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고경면에]
돈이 되는 주민동의서...5억원의 파장

영천시 고경면이 자칫 *자중지란에 처할 위기다. 지역에 들어설 환경오염 시설 때문이다. 먼저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도 잠재돼 있는데 SRF(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들어선 풍력발전소도 *가담항설로 사업진행이 답보상태다. *자중지란(自中之亂)-자기네 패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질. *가담항설(街談巷說)-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가뜩이나 축사와 음식물 퇴비공장으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폐합성수지(폐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접수된데다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이 추가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청정 고경이 환경오염지 오명을 쓸 우려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정착하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주민동의서를 받기위해 업체들은 로비를 해야할 처지다. 때문에 해당 지역 이장이나 목소리 꽤나 높은 사람들은 업체 로비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뒷거래 의혹이 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고경면이 최근 환경오염시설 설치 예정업체들과의 뒷거래 논란이 불거져 주민들 사이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정인들이 주민들 눈 앞에서는 반대를 외치면서 뒤로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수 억원의 뒷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 현장을 따라가 보자! 지난 5월 24일 지역 택지개발 대행사인 D업체(대표 박 모씨)가 발전소설치와 관련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SRF로부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5억원을 수취했다. 문서와 관련해 주민들 앞에서 SRF 반대를 외쳐온 고경면의 A씨의 이름이 올려졌고 A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 했지만 D업체의 고문 이기에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더군다나 A씨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 설치 가동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한 각서(법정 공정용)까지 만들어 돌렸다. 즉, 의료폐기물소각장을 하려는 D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K씨가 사업주체로 확인됐고 A씨는 D업체 고문으로 있어 주민들의 눈총은 더 따갑다.

고경면 뒷거래 의혹... 야사택지지구로 옮길라!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당사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지원자 위치에 있었고 환경오염시설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터라 이번 뒷거래 의혹이 확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래서는 안된다. 5억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초 주민동의서를 받기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계약서상에는 주민들과의 합의와 동시에 5억원을 받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동의를 받기위한 흔적은 없다. 목적과는 상관없이 돈만 두 달여간 유통되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돈이 주민동의서는 명분이고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갔다 나온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자칫 택지개발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D업체는 최근 지역 주민들 앞으로 의료폐기물소각장 각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등 소각장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각서에서 의료폐기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조선내화-E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제안서의 주체는 (주)바이오프로솔루션스(대표 D업체 박 모씨)로 바뀌어 사업의 주체도 왔다갔다 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업체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업 실제마저 의심된다. 여기에 A씨는 중립을 지킨다지만 각서 작성을 한 장본인이라 주민들이 고개를 가우뚱 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고경면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민들간 갈등만 증폭돼 사분오열(四分五裂)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든 SRF든 의료폐기물소각 시설이든 이제 정리할 단계다.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호국원이 참관한 가운데 29일 또다시 긴급 간담회가 열린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화합하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이 사태는 끝이없다.

특정인이 주도해서도 비 전문인이 없어서도 어렵다. 관이 참관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한다. 칠·팔순의 주민들보다 관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관이 사업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뒷집지고 거리를 돌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앞장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미다.

특정인이나 목소리 높은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숨죽여 함구무언(緘口無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치 님비현상으로 환경오염 시설 허가를 빌미로 주민들의 '갑'질 권리를 만용해 뒷거래의 의혹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새바람 행복 경북!

행정안전부 주관 5급승진리더과정 성적우수 전국 1위! 경상북도가 해냈습니다.

- 전국 지자체 교육생 723명 중 1·2·3위 석권
- 전체 성적우수자 10명 중 6명 배출, 역대 최다 쾌거!



새벽에 공부하는 공무원 화공 콧모닝 특강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혁신 인재 육성으로 연구중심 혁신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